■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3-44.
http://doi.org/10.17948/kcs.2020..86.13

【특집: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축적과 활용】

조선 중기 『家禮』에 대한 고증과 보정
—『家禮輯覽』을 중심으로—

한재훈(韓在壎)*

목 차

1. 서론
2. 『家禮輯覽』의 문제의식과 구성
3. 『家禮』에 대한 『家禮輯覽』의 고증
4. 『家禮』에 대한 『家禮輯覽』의 보정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 중기의 『家禮』 연구가 行禮의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家禮』에 대한 강론과 이해의 단계를 거쳐 考證과 補正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흐름 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중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家禮輯覽』을 중심으로 당시 『家禮』 연구의 수준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문은 먼저 『家禮輯覽』의 문제의식과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어서 『家禮』에 대한 考證과 補正의 내용과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家禮輯覽』은 『家禮』의 난해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으며, 『家禮』의 本文과 本註 그리고 附註 등 『家禮』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家禮輯覽』은

*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家禮』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뽑아 총 1,511개의 표제로 세우고 이에 대한 고증과 보정 작업을 진행했다. 『家禮』를 고증하고 보정하기 위해 三禮書를 비롯한 古禮 관련 예서들을 참고하였을 뿐 아니라, 唐·宋 시대에 제정된 今制들도 함께 살폈다. 또한 『家禮』의 체제에 영향을 준 『書儀』 등 선행 家禮書와 선현들의 예설까지 두루 참고하였으며, 특히 朱子의 예설을 참고하기 위해 『朱子大全』과 『朱子語類』 등도 폭넓게 조사했다. 뿐만 아니라, 『家禮儀節』을 포함한 중국과 조선에서 간행된 『家禮』 관련 羽翼書들과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반영했다.

『家禮輯覽』의 고증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家禮』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이설들에 대한 변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먼저 『家禮輯覽』은 『家禮』에 등장하는 글자와 단어 그리고 문장에 이르기까지 『家禮』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꼼꼼하게 표제어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고증 작업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家禮輯覽』에는 해당 禮文이나 禮制에 대하여 예서나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 『家禮輯覽』은 이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설들 간의 우열을 평가해서 취사를 판단하기도 했고, 그것이 용이치 않을 경우 숙제로 남겨둔 채 판단을 보류하기도 했다.

제시된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고증이라면, 보정은 제시된 글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家禮輯覽』은 『家禮』에 대한 고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家禮』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는 작업까지 진행했다. 『家禮輯覽』이 『家禮』를 보완한 대표적 사례가 「五服年月歷代沿革」이며, 『家禮』의 誤字나 闕文은 물론 『家禮輯覽圖說』에 제시된 「長子冠禮圖」와 「衆子冠禮圖」처럼 기존의 구성을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도 있다. 『家禮輯覽』의 『家禮』 연구 경향은 비슷한 시기 중국의 『家禮會成』이 『家禮』보다 『家禮儀節』을 바탕으로 明代의 時制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경향과 비교했을 때, 철저하게 『家禮』를 이해하고 준행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김장생, 『가례집람』, 『가례』, 예학, 조선 중기.

1. 서론

조선 전기부터 『家禮』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16세기 중반부터 조선의 『家禮』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다. 이는 『性理大全』이 1518년 간행된 데 이

어 1543년『朱子大全』이 간행됨으로써 조선 학계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심화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1] 이와 더불어 1518년 수입되어 간행된『家禮儀節』이『家禮』의 羽翼書로서 연구에 적극 활용된 것과 1567년에서 1571년 사이에 간행된『儀禮經傳通解』의 보급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2]

이 시기 조선의『家禮』연구는 祭禮를 중심으로 行禮의 표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작업이 반복되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3] 먼저 조선의『家禮』연구자들은 祭禮書를 만들기 시작했다. 聾巖 李賢輔(1467-1555)의『祭禮』, 晦齋 李彦迪(1491-1553)의『奉先雜儀』, 秋坡 宋麒壽(1507-1581)의『行祀儀節』등이 대표적이다.[4] 이러한 흐름에 이어 退溪 李滉(1501-1570), 南冥 曺植(1501-1572), 河西 金麟厚(1510-1560) 등은『家禮』의 내용과 의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와 강론을 진행했다. 退溪의『退溪喪祭禮答問』이나 河西의『家禮考誤』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退溪와 그 제자들은『家禮』를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고, 그 결과『家禮註解』(李德弘: 1541-1596),『家禮講錄』(金隆: 1549-1594),『家禮諺解』(申湜: 1551-1623) 등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5]

이 시기『家禮』연구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바로 '考證'이다. 이러한 흐름은『家禮』에 제시된 禮文의 원류를 찾아내 고증함으로써『家禮』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려는 시도로서,『家禮』연구의 질적 제고를

---

1) 고영진,「조선 중기 가례주석서의 특성」,『한국계보연구』제6호, 한국계보연구회, 2016, 36면.

2) 장동우는 조선시대『家禮』연구가 첫째『性理大全』본에 수록되어 전해진『家禮』의 보급과 확산, 둘째『儀禮經傳通解』의 수입과 보급, 셋째『家禮儀節』의 도입과 유통이라는 세 가지 표면적인 동인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본다. 장동우,「『가례』주석서를 통해 본 조선 예학의 진전과정」,『동양철학』제34집, 한국동양철학회, 2010, 241-242면.

3) 장동우,「『喪禮通載』의 예학사적 위상」,『태동고전연구』제32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4, 173면.

4) 고영진,『조선 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5) 李滉의 문하에서 생산된『家禮』관련 연구서들로는 이 밖에도 嘯皐 朴承任(1517-1586)의『四禮辨解』·『喪禮要略』·『疑禮講錄』, 梅軒 琴輔(1521-1584)의『四禮正變』·『四禮記問』, 月川 趙穆(1524-1606)의『家禮疑義』등이 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南在珠,「조선후기 예학의 지역적 전개 양상 연구—영남지역 예학을 중심으로」, 경성대 박사학위논문, 2012, 15-16면과 장동우,「朝鮮時代『家禮』研究의 進展」,『태동고전연구』제31집, 2013, 216-217면 참조.

의미한다. 『禮記』와 같은 古禮를 통해 『家禮』를 고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家禮』의 내실을 다지는 것은 물론 禮學의 외연까지 확대해갔다. 이러한 흐름 역시 退溪의 문하에서 주도하였는데, 鶴峯 金誠一(1528-1593)과 西厓 柳成龍(1542-1602)의 同名異書인 『喪禮考證』과 寒岡 鄭逑(1543-1620)의 『禮記喪禮分類』가 대표적이다. 특히 寒岡은 고증의 외연을 宋代의 五先生으로까지 확대한 『五先生禮說分類』를 남겼다.

退溪와 그 문인들이 선도했던 조선 중기 『家禮』 연구의 이와 같은 흐름은 栗谷 李珥(1536-1584)와 龜峯 宋翼弼(1534-1599)에서 沙溪 金長生(1548-1631)으로 이어지는 기호지역의 『家禮』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栗谷은 『擊蒙要訣』에 부록된 「祭儀抄」를 통해 『家禮』의 祭禮 부분을 행례의 매뉴얼로 제시하였고, 龜峯은 『家禮註說』을 통해 『家禮』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난해한 부분들을 古禮나 기타 禮書에 입각하여 주석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家禮』 주석서의 출현을 알렸다.[6] 栗谷과 龜峯을 사사한 沙溪[7]는 『喪禮備要』와 『家禮輯覽』 그리고 『疑禮問解』라는 연구물을 남김으로써 조선시대 禮學史에 큰 획을 그었다. 특히 『家禮輯覽』은 『喪禮備要』나 『疑禮問解』와 그 저술 목적이 달랐다. 『喪禮備要』와 『疑禮問解』는 행례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常禮와 變禮의 다양한 내용들을 考據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면, 『家禮輯覽』은 철저하게 『家禮』의 儀度와 名物을 명료하게 이해[通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중기의 『家禮』 연구가 行禮의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家禮』에 대한 강론과 이해의 단계를 거쳐 考證과 補正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흐름 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중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家禮輯覽』을 중심으로 당시 『家禮』 연구의 수준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家禮輯覽』의 문제의식과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어서 『家禮』에 대한 考證과 補正의 내용과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

6) 고영진, 앞의 글, 43면.

7) 김장생이 이익과 송익필로부터 받은 학문적 영향관계에 관해서는 김현수,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율곡학파의 家禮주석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9집, 한국유교학회, 2017, 106면 참조.

2.『家禮輯覽』의 문제의식과 구성

조선 중기에 산출된『家禮』관련 종합연구서 중 대표적인 성과물로는『家禮輯覽』을 꼽을 수 있다.『家禮』관련 종합연구서라 함은『家禮』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家禮』의 미비한 부분들을 찾아내 이를 고증하고 보정하는 작업까지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8]

『家禮輯覽』은 沙溪 金長生의 아들인 愼獨齋 金集(1574-1656)과 尤庵 宋時烈(1607-1689) 등 문인들에 의해 1685년 간행되었다. 하지만 이 책의 초고가 만들어진 것은 1599년으로 전해진다.[9]『家禮輯覽』은『家禮』의 난해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으며,『家禮』의 本文과 本註 그리고 附註 등『家禮』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家禮』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뽑아 표제로 세우고 이에 대한 고증과 보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 책의 간행을 주도하고 서문을 쓴 尤庵은 이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家禮』라는 책은 초고 형태로 쓰인 뒤 없어져 버렸다가 나온 것이어서, 그 儀度나 名物 등과 관련하여 독자들이 애를 먹는 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마침내 조목조목 해석을 다셨다. 章句를 변별하셨고, 빠졌거나 생략된 부분을 채워 넣으셨으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셨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남겨두셨다. 이를『家禮輯覽』이라 명명하신 다음 또 圖說을 지어 책의 앞부분에 배치하셨다.[10]

尤庵에 따르면『家禮輯覽』은 우선『家禮』에 등장하는 갖가지 의식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예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물품 등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술되었다. 이는『家禮輯覽』

---

8)『家禮輯覽』과 비슷한 시기에 芝山 曺好益(1545-1609)의『家禮考證』이 1635년 간행되었지만, 그 자체로 미완성 작품이라는 점에서 맞비교하기는 어렵다.

9) 慶星大 韓國學硏究所 編, 「『家禮輯覽』 해제」,『韓國禮學叢書』 5, 慶星大 韓國學硏究所, 2008 참고. 이하에서『家禮輯覽』을 인용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책을 인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10) 宋時烈, 「家禮輯覽後序」,『宋子大全』 卷139. "又以爲『家禮』之書出於草創亡失之餘, 而其儀度名物之際, 讀者猶有病焉者, 遂逐條解釋, 辨別其章句, 塡補其闕略, 訛者正之, 疑者闕之. 旣成名以『家禮輯覽』, 又爲圖說一編, 冠在卷首."

이 기존에 조선에서 진행되었던 『家禮』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연구 목적을 계승했음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이 책은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진일보한 또 다른 목적성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빠졌거나 생략된 부분을 채워 넣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의심난 부분은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家禮輯覽』에서 沙溪는 瓊山 丘濬(1421-1495)의 『家禮儀節』에서 제기한 「家禮圖」의 문제점 6가지 외에 「家禮圖」를 『家禮』 본문과 대조하여 부합하지 않은 15가지를 추가로 제시했다.[11] 이 과정에서 沙溪는 「家禮圖」의 '主式圖'에 '大德(1297-1307)'이라는 元 成宗의 연호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家禮圖」가 朱子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沙溪는 『家禮』가 朱子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朱子 초년에 망실되었다가 사후에 회수된 정황으로 인해 朱子의 수정을 거칠 수 없었던 예서로서의 한계를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이 『家禮』에 대한 고증과 보정이라는 작업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家禮』를 고증하고 보정하기 위해 沙溪는 三禮書를 비롯한 古禮 관련 예서들을 참고하였을 뿐 아니라, 唐·宋 시대에 제정된 今制들도 함께 살폈다. 또한 『家禮』의 체제에 영향을 준 『書儀』 등 선행 家禮書와 선현들의 예설도 두루 참고하였으며, 특히 朱子의 예설을 참고하기 위해 『朱子大全』과 『朱子語類』 등도 폭넓게 조사했다. 뿐만 아니라, 『家禮儀節』을 포함한 중국과 조선에서 간행된 『家禮』 관련 우익서들과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반영했다.

『家禮輯覽』이 간행되기 이전까지 『家禮』 연구와 관련하여 당시 조선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은 退溪의 예설을 모아서 엮은 『退溪喪祭禮答問』이었다. 그러나 退溪가 知舊나 門人들과 喪·祭禮와 관련하여 문답을 주고받은 글들을 발췌해 엮은 이 책이 갖는 『家禮』 참고서로서의 한계는 분명했다.[12] 이에 비

11) 金長生, 「家禮圖」, 『家禮輯覽』(『沙溪先生全書』 卷25) 韓國禮學叢書 5, 慶星大 韓國學硏究所, 2008, 5-6면에는 14종(1+13)이 제시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청구번호: K1-106) 「家禮圖」, 『家禮輯覽』 卷1에는 15종(1+14)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를 따랐다. 참고로 무신자본 『家禮』 역시 「家禮圖」 뒤에 沙溪의 15종 설을 채택하여 실었다.

12) 禮書로서 『退溪喪祭禮答問』이 갖는 한계와 관련해서는 한재훈, 「퇴계 예학관련 문헌자료의 전개

하면『家禮輯覽』은『家禮』의 체제에 따라 항목을 나누고, 조목에 따른 표제어를 선정한 다음, 이에 관해 고증과 보정 작업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체제상으로도 진일보한『家禮』관련 연구 성과물일 뿐 아니라, 이후『家禮』관련 연구의 전범이 되었다.

『家禮輯覽』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家禮圖」·「家禮序」와 관련하여 각각 36개와 31개의 표제어를 제시하고 이에 관해 고증과 보정을 진행했다. 다음으로,「通禮」는 4개의 항목에 총 281개의 표제어를 제시하고,「冠禮」는 3항목에 표제어 99개,「昏禮」는 8항목에 표제어 132개,「喪禮」는 29항목에 표제어 784개,「祭禮」는 7항목에 표제어 148개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종합하면『家禮輯覽』은 총 1,511개의 표제어에 관한 고증과 보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家禮輯覽』표제어 조사표 참고)

[표 1]『家禮輯覽』표제어

대항목	세부조목	표제어	표제어
家禮圖	해당사항 없음		36
家禮序	해당사항 없음		31
通禮	通禮	1	281
	祠堂	157	
	深衣制度	41	
	司馬氏居家雜儀	82	
冠禮	冠禮	1	99
	冠	89	
	笄	9	
昏禮	昏禮	1	132
	議昏	14	
	納采	15	
	納幣	11	
	親迎	67	
	婦見舅姑	13	
	廟見	2	
	壻見婦之父母	9	
喪禮	喪禮	1	784
	初終	51	
	沐浴・襲・奠・爲位・飯含	82	
	靈座・魂帛・銘旌	32	
	小斂・袒・括髮・免・髽・奠・代哭	23	
	大斂	20	
	成服(上)	83	
	成服(下)	125	
	朝夕哭奠・上食	13	
	弔・奠・賻	32	
	聞喪・奔喪	16	
	治葬	86	
	遷柩・朝祖・奠・賻・陳器・祖奠	25	
	遣奠	8	
	發引	5	
	及墓・下棺・祠后土・題木主・成墳	37	
	反哭	7	
	虞祭	33	
	卒哭	9	
	祔	8	
	小祥	11	
	大祥	20	
	禫	19	
	居喪雜儀	12	
	致賻奠狀	5	
	謝狀	2	
	慰人父母亡疏	13	
	父母亡答人慰疏	5	
	祖父母亡答人啓狀	1	
祭禮	祭禮	1	148
	四時祭	79	
	初祖	22	
	先祖	8	
	禰	1	
	忌日	11	
	墓祭	26	
총합	해당사항 없음		1,511

양상」,『퇴계학논집』제17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a 참조.

3. 『家禮』에 대한 『家禮輯覽』의 고증

1) 정확한 이해를 위한 고증

『家禮輯覽』의 고증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家禮』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이설들에 대한 변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먼저 『家禮』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부터 살펴보면, 『家禮輯覽』은 『家禮』에 등장하는 글자와 단어 그리고 문장에 이르기까지 『家禮』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꼼꼼하게 표제어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고증 작업을 진행했다.

글자와 관련하여 『家禮輯覽』은 대단히 쉬운 글자여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글자들까지도 音과 訓은 물론 어원까지 제시하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정보를 가능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家禮』 「通禮」 '深衣制度'條에 "상의[衣]는 전체가 4폭이고, 그 길이는 갈비뼈를 지나며, 아랫면은 치마[裳]와 연결한다."[13]라는 구절에 나오는 '屬'자에 대해 『家禮輯覽』은 "『韻會』에 '朱欲切'이라 했고, '잇다'라는 뜻이다."라고 고증하였다.[14] 이는 이 '屬'자가 '속'이라는 음과 '촉'이라는 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잇다'라는 뜻의 '촉'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역시 「通禮」 '深衣制度'條에 "曲裾"부분의 本註에서 '鄭註'를 인용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註'라는 글자에 대해 『家禮輯覽』은 "註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經文 아래에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고증하였다.[15] 이렇게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으로 글자들을 설명하는 사례들 이외에 異體字에 대해 고증한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据'자는 '據'자와 통용한다거나,[16] '厝'자는 '措'와 바꿔 쓴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17]

다음으로 『家禮輯覽』은 수많은 단어들을 표제어로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13) 朱熹, 「深衣制度」 條, 『家禮』 通禮. "衣全四幅, 其長過脇, 下屬於裳."
14) 金長生, 앞의 책, 56면. "屬【『韻會』. '朱欲切. 連也.'】"
15) 같은 책, 61면. "鄭註【言'註'者, 註義於經下, 若水之注物.】"
16) 같은 책, 256-257면. "据【『韻會』. '居御切. 按也.' 通作據.】"
17) 같은 책, 332면. "厝【『韻會』. '措, 倉故切, 或作厝, 置也, 安著也.'】"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기에는 우선 고유명사로서 인물명이나 지명[18], 그리고 여러 문헌의 이름들이[19] 포함된다. 인물명과 관련한 예를 들면, '司馬氏' 경우처럼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20] '楊復'처럼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家禮』와 관련하여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21] 또는 '杜佑'처럼 해당 인물에 대한 朱子의 평을 함께 실어주는 경우도 있다.[22]

일반명사의 경우 '恁地', '這般'과 같은 語錄體 白話文에 관한 표제어도 많이 발견되지만,[23] 단어 고증은 어떤 단어가 원래 어떤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것이『家禮』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역시 익숙한 단어이지만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한 것들에서부터 아주 난해한 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祭祀'라는 단어에 관해『家禮輯覽』은 다음과 같이 고증하고 있다.

> 「祭法」註에 이르기를 "이왕 祭라고 해놓고 다시 祀라고 한 까닭은 아마 祭는 祀의 事이고, 祀는 祭의 道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五禮儀』「辨祀」註에 이르기를 "무릇 祭祀의 禮를 말할 때, 天神에게 지내는 것을 祀, 地祇에게 지내는 것을 祭, 人鬼에게 지내는 것을 享, 文宣王에게 지내는 것을 釋奠이라고 한다."고 했다.[24]

『家禮輯覽』에서 고증을 진행한 이유는 그것이 글자든 단어든『家禮』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글자의 어원을 이해하는 이유도, 단어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는 이유도 모두 여기로 귀결된다. 이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冠禮」의 "前期三日 (…)"

---

18) 예를 들면, '橫渠'에 대해 "橫渠, 鎭名, 在鳳翔郿縣. 先生, 名載, 字子厚, 姓張.". 같은 책, 18면 참조.
19) 예를 들면, "「學記」、「大學」、「中庸」、「樂記」【並『禮記』篇名.】". 같은 책, 76면 참조.
20) 같은 책, 17면. "司馬氏【名光, 字君實, 陝州夏縣人. 贈溫國公, 諡文正.】"
21) 같은 책, 16-17면 참조.
22) 같은 책, 24면. "杜佑【『唐書』. '萬年人. 德、憲兩朝, 拜司空、司徒. 博學, 撰『通典』二百篇.' ○按, 佑黨於伾文, 朱子譏之.】"
23) 같은 책, 33면. "恁地【『語錄解』. '如是也.'】 這般【『語錄解』. '猶言'此等'也.'】"
24) 같은 책, 12면. "祭祀【「祭法」註. '旣曰祭, 又曰祀者, 蓋祭者祀之事, 祀者祭之道.' ○『五禮儀』「辨祀」註. '凡祭祀之禮, 天神曰祀, 地祇曰祭, 人鬼曰享, 文宣王曰釋奠.'】"

註에 나오는 "冠者의 祖父"에서 '祖父'는 '할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임을 밝힌 것처럼 해당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을 수 있는 오독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들이 많다.[25] 그런가 하면 '就裏爲大'처럼 문장 내에서 해당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고증들도 눈에 띈다. '就裏爲大'는 「通禮」'班祔'條 附註에서 神主들을 堂으로 모셔와 時祭를 지낼 때 班祔된 旁親들의 坐次를 결정하는 원칙에 관한 이야기[26] 중에 나오는 말로, 『家禮輯覽』은 이에 대해 '裏'는 '堂의 북면'을 가리키고 '大'는 '존귀하다'의 의미라는 것을 각각 고증했다.[27]

이상과 같은 방식의 고증도 모두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고증의 핵심은 전거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거를 밝히는 고증은 『家禮』의 해당 내용이 어느 경전이나 어떤 사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밝힘으로써 해당 禮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고증 사례로는 '遺書'와 같이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28] 여러 예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증을 하는 복잡한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家禮』「喪禮」에 "집사자는 幃와 牀을 설치하고, 시신을 옮기고, 구덩이를 판다."는 구절이 있다.[29] 이 구절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첫 단계를 설명한 것으로, 이 가운데 '幃와 牀을 설치한다'에 관한 고증을 위해 『家禮輯覽』은 『儀禮』와 『禮記』는 물론 『開元禮』와 『儀禮經傳通解續』까지 두루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按說도 함께 싣고 있다.

『家禮輯覽』은 먼저 『儀禮』「士喪禮」에 나오는 '堂에 휘장을 친다'[帷堂]는 이야기와 이에 관한 注와 疏를 검토하는 것으로 고증을 시작한다. 특히 휘장을 치는 이유와 관련하여 『家禮輯覽』은 "귀신은 어둠을 숭상하기 때문"이라는 疏의 주장에 주목한다. 그런 다음 휘장을 치는 이유와 관련하여 "시신을 아직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禮記』「檀弓」의 이야기와 이에 대해 '사람이

25) 같은 책, 82면. "冠者之祖父【謂祖及父.】"
26) 朱熹, 『家禮』 通禮. "旁親之無後者, 以其班祔. [附註]遇大時節, 請祖先祭于堂或廳上, 坐次亦如在廟時排定. 祔祭旁親者, 右丈夫, 左婦女, 坐以就裏爲大."
27) 金長生, 앞의 책, 35면. "就裏爲大【按, 裏, 內也, 指堂之北而言也. ○龜峯曰. '大, 尊也. 如『左傳』'新鬼爲大'之'大', 蓋僖公, 閔公之兄, 故以僖公之鬼爲大.'】"
28) 같은 책, 26면. "遺書【按, 『開元禮』有'疾病遺言則書之'文, 卽是遺書.】"
29) 朱熹, 「沐浴・襲・奠・爲位・飯含」條, 『家禮』 喪禮. "執事者設幃及牀, 遷尸, 掘坎."

죽으면 남들이 혐오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휘장을 치는 것'이라는 취지의 註의 설명을 덧붙여 제시한다. 정리하자면, 襲과 斂을 하기 전에 휘장을 치는 이유로 「士喪禮」의 疏는 '귀신이 어둠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檀弓」의 註는 '시신에 대한 사람들의 혐오감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두고 沙溪는『儀禮經傳通解續』의 입장을 검토했고, 그 결과『儀禮經傳通解續』이 「士喪禮」 疏의 입장을 취한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家禮輯覽』은 다음과 같은 按說을 덧붙였다.

> 그러나 후세에 禮를 고증하는 사람들은 모두 疏의 설을 따르지 않고 「檀弓」의 글을 취했다. 丘氏의『儀節』과『補註』가 그렇다. 나 역시 '만일 「士喪禮」 疏의 설을 따르게 되면, 이는 곧 그 어버이를 죽었다 여기고 귀신으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孝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30)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家禮輯覽』은 해당 禮制의 전거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禮制를 시행하는 이유를 해명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禮書들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은 '孝子의 뜻'과 같은 '義理'에 초점을 맞추었다.

2) 異說들에 대한 변증

『家禮輯覽』에는 해당 禮文이나 禮制에 대하여 예서나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무수히 발견된다. 이럴 경우 沙溪는 이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설들 간의 우열을 평가해서 취사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

---

30) 金長生, 앞의 책, 163-164면. "設幃及牀【按,「士喪禮」.'帷堂.' 註.'事小訖也.' 疏.'事小訖者, 以其未襲, 斂必帷之者, 鬼神尙幽闇故也.' 又'君使人弔, 撤帷.' 註.'撤帷, 屋【羌據反, 開戶.】之, 事畢則下之.' 疏.''徹帷, 屋之'者, 謂褒帷而上, 非謂全徹去. 知'事畢則下之'者, 按下'君使人襚, 徹帷', 明此事畢, 下之可知.' 又'卒斂, 徹帷.' 註.'尸已飾.' 又按,『禮記』.'朝夕哭, 不帷.' 註.'朝夕之間, 孝子欲見殯, 故哭則褒擧其帷, 哭畢仍垂下之.' 又按,「檀弓」.'尸未設飾, 故帷堂, 小斂而徹帷.' 註.'人死, 斯惡之矣.'未設飾, 故帷堂', 蓋以防人之所惡也. 小斂, 則旣設飾, 故撤焉.' 此傳說與「士喪禮」疏說不同, 未詳何據. 又按, 黃勉齋『續儀禮經傳通解』只存'鬼神尙幽闇'之說, 而不引「檀弓」此說, 其去取可知也. 但後來考禮之家皆不從疏說, 而只取「檀弓」文, 如丘氏『儀節』及『補註』是已. 愚亦以爲若從「士喪」疏說, 則是卽死其親而爲鬼也, 恐非孝子之意也. 且小斂後撤之者, 尸已飾, 而將奉尸夷于堂, 恐嚇於事故也. 又按,『開元禮』註.'初氣絶, 室內隨事設帷.'】"

다.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평가와 판단이 쉽지 않을 경우 숙제로 남겨둔 채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家禮』「喪禮」에 襲을 마치고 斂을 하기 전에 "靈座를 안치하고 魂帛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의 本註에 "侍者는 아침저녁으로 머리 빗고 세수하고 봉양하는 도구를 평상시와 같이 진설한다"는 설명이 있다.[31] 그런데 『家禮輯覽』은 이와 관련하여, 『五禮儀』에는 이 다음에 "비로소 朝夕奠과 上食을 한다"는 禮文이 있으나, 다른 禮經과 『家禮』는 成服을 한 다음에 비로소(朝夕奠과 上食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禮經을 따라야 한다는 변증을 하고 있다.[32] 이처럼 『五禮儀』와 『家禮』를 비롯한 다른 예경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할 때 어떤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나마 판단하기 용이한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것은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家禮』「通禮」 '祠堂'條 附註에 '士庶의 四代奉祀'에 관한 질문을 받고, 朱子가 답을 한 내용이 실려 있다.[33] 朱子의 답 중에 '四代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미 참람한 것이다'[祭四代已爲僭]는 표현이 나오는데, 『家禮輯覽』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설들을 변증하고 있다. 『家禮輯覽』은 먼저 『朱子語類』에서 朱子가 古禮의 '一代'설과 溫公의 '三代'설, 伊川의 '四代'설을 검토한 결과 "四代까지 제사를 지내도 無害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소개한다.[34] 다음으로는 '高祖까지 제사 지내는 것은 참람한 것'이라고 한 朱子의 또 다른 주장과 함께 조선의 禮典에서 '六品 이상은 三代만 제사를 지낸다'고 한 것을 어길 수 없다고 한 晦齋 李彦迪의 주장을 실었다.[35] 뒤이어 頤庵 宋寅(1516-1584)이

---

31) 朱熹, 「靈座、魂帛、銘旌」條, 『家禮』 喪禮. "置靈座, 設魂帛. [本註] 侍者朝夕設櫛頮奉養之具, 皆如平生."

32) 金長生, 앞의 책, 184면. "按, 『五禮儀』此下有'始設朝夕奠及上食'之文, 而禮經及『家禮』則成服之日始設, 當從禮經."

33) 朱熹, 「祠堂」條, 『家禮』 通禮. "[附註]【或問. '而今士庶亦有始基之祖, 莫亦只祭得四代. 以上, 則可不祭否?' 朱子曰. '而今祭四代已爲僭. 古者官師亦只祭得二代, 若是始基之祖, 想亦只存得墓祭.'】"

34) 『朱子語類』 卷90 禮7 112則. "叔器問. '士庶當祭幾代?' 曰. '古時一代卽有一廟, 其禮甚多. 今於禮制大段虧缺, 而士庶皆無廟. 但溫公禮祭三代, 伊川祭自高祖, 始疑其過. 要之, 旣無廟, 又於禮煞缺, 祭四代亦無害.'; 金長生, 앞의 책, 52면.

35) 李彦迪, 『奉先雜儀』. "按, 程子言'高祖有服, 不祭甚非', 文公『家禮』祭及高祖蓋亦本於程氏之禮也. 然『禮』, 大夫三廟, 士二廟, 無祭及高祖之文, 故朱子亦以祭高祖爲僭. 且今國朝禮典'六品以上祭三代', 不可違也. 竊

"時祭는 曾祖까지, 高祖는 墓祭와 忌祭, 五代祖는 寒食과 秋夕에 墓祭만, 六代祖는 寒食에 墓祭만 지내자"고 한 주장과[36] 筆山 侯廷訓(1484-1546)이 "洪武年間의『儀注』에도 孝孫이 四代奉祀를 할 때의 축문이 있으니, 이것도 時制이다"라고 한 말을 차례로 실었다.[37]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按說을 달았다.

> 살펴보건대, 栗谷의『擊蒙要訣』도 國制에 따라 三代까지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러나『家禮』에 알맞은 제도[中制]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禮를 좋아하는 가문에서는 대부분『家禮』를 따른다.[38]

위의 변증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程·朱의 이른바 '義起之禮'로 제안된 '四代奉祀'와 이를 허락하지 않은 당시 조선의 國制 사이의 충돌이다. 高麗 恭讓王 때에는 "大夫 이상은 三代, 6품 이상은 二代, 7품 이하부터 庶人까지는 父母에게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다가[39] 다시 "6품 이상까지 三代奉祀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40] 이러한 규정은 朝鮮이 개국된 초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다가,[41] 禮制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 世宗代[42]에 이르러 재규

意, 高祖雖無廟, 亦不可全廢其祭, 春秋俗節, 率其子孫詣墓祭之, 庶無違禮意, 而亦不至忘本也."; 金長生, 앞의 책, 52면.

36) 宋寅,「禮說」,『頤庵遺稿』別集1. "時祭則拘於國法, 止於曾祖. 墓祭、忌祭則並及高祖可也. 五世祖墓, 寒食、秋夕祭之可也. 六世祖以上, 只寒食祭之."; 金長生, 앞의 책, 52-53면. "頤庵曰. '時祭則拘於國法, 止於曾祖, 而高祖則只行墓祭、忌祭, 五代祖則只行墓祭於寒食、秋夕, 六代祖之墓祭, 只行於寒食.'"

37) 金長生, 앞의 책, 53면. "侯氏【廷訓】曰. '洪武年間『儀注』, 亦有孝孫祭高曾祖禰考妣祝文, 則此又時制也.'"

38) 같은 책, 53면. "按, 栗谷『擊蒙要訣』亦從國制, 只祭三代. 然『家禮』旣以四代定爲中制, 故好禮之家多從『家禮』."

39)「大夫士庶人祭禮」,『高麗史』卷17 禮5. "恭讓王二年二月判, 大夫以上祭三世, 六品以上祭二世, 七品以下至於庶人止祭父母."

40)「百官忌暇」,『高麗史』卷18 禮6. "恭讓王三年五月庚子. 敎近設家廟, 旣令六品以上祭三代, 自今許行曾祖考妣忌日之祭."

41)『太祖實錄』卷9 5年(1396) 5月 20日. "吏曹請顯祖宗重配匹, '一, 六品以上應祭三代者, 追贈三代考妣. 父對品, 祖·曾祖各遞降一等, 妣竝同. 功臣則加二等.'"; 『太宗實錄』卷32 16年(1416) 7月 12日. "吏曹復啓追贈法, '前受敎內, '兩府以上追贈考妣, 父對品, 祖曾祖各遞降一等, 妣竝同.' 然遞降等次未定, 今後追贈遞降, 每品降等. 又永樂元年受敎, '六品以上有功國家, 許追贈祖父, 不及曾祖考妣.' 乞依祭三代禮, 曾祖考妣竝追贈.' 從之."

42) 조선초기에는 아직 체제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여서 高麗의 제도와 唐의 제도를 주로 따랐다.

정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의 핵심 쟁점은 이 규정이 程子와 朱子에 의해 제시된 견해와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世宗은 신하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여 진주하도록 했고, 이때 龜村 黃喜(1363-1452)·春亭 卞季良(1369-1430)·申商(1372-1435) 등은 奉祀代數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古佛 孟思誠(1360-1438)·敬庵 許稠(1369-1439)·鄭招(?-1434) 등은 대체로 程·朱의 견해를 따르자는 입장이었다. 世宗 역시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매우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 祖宗 成憲이라는 점과 그것이 廟制에 담겨 있는 古法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尊卑의 차등을 없앨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등론을 지지했다.[43] 그리고 이러한 입장들이 결국 『經國大典』의 규정으로 정착되었다.[44]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程·朱가 제시한 四代奉祀가 '大賢義起之禮'임을 내세워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하게 지지를 표했던 인물이 바로 退溪였다.[45] 이러한 退溪의 입장은 이후 지역과 학파를 불문하고 조선에서 四代奉祀가 정착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46] 沙溪는 『家禮輯覽』의 변증 과정에서 退溪의 주장을 의도적 배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栗谷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退溪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47]

『家禮輯覽』에는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이 충돌하여 우열

그러나 太宗代에 와서 明의 『洪武禮制』를 기본으로 한 개정 노력이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예제 연구기관인 儀禮詳定所가 1402년(太宗 2)에 설립되자 『大唐開元禮』를 참작하여 宋制에 가깝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이 행해졌다. 나아가 世宗代에 가면 集賢殿이 설립되어, 그곳에서 古制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五禮는 더욱 체계를 잡아 결국 『世宗實錄』「五禮」로 정리되었다. 池斗煥, 「國朝五禮儀 編纂過程(1)」, 『釜山史學』 제9집, 부산경남사학회, 1985 참조.

43) 『世宗實錄』 卷43 11年(1429) 3月 13日. "左代言許誠啓'祭及高祖'之議, 上曰, '予以此禮爲難斷也. 通祭四代之禮, 先儒所未定, 只祭三代之禮, 先祖之成憲, 此亦依古法而制者也, 何可輕有紛更? 天子七·諸侯五·大夫三·士二, 此古人降殺之制也, 而今上自大夫下至庶人, 皆得祭四代, 則尊卑之等, 不亦無別乎?'"

44) 고영진, 앞의 책, 39-40면 참조.

45) 李滉, 「答宋寡尤言愼○庚午」, 『退溪全書』 卷13. "士大夫祭三代, 乃時王之制, 固當遵守, 而其祭四代, 亦大賢義起之禮, 非有所不可行者."

46) 이에 관해서는 한재훈, 「退溪 禮學思想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참조.

47) 이 장면에서도 沙溪가 退溪 禮學의 비판적 계승자라는 사실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沙溪가 退溪 禮學의 비판적 계승자라는 입장에 관해서는 한재훈, 「退溪 禮說에 대한 沙溪의 비판과 계승—『疑禮問解』와 「『喪祭禮答問』辨疑」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제30호, 한국실학학회, 2015b 참고.

을 평가하거나 취사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축문에 '孝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변증을 들 수 있다.『家禮輯覽』은 먼저『禮記』「雜記」에서 "祭에는 '孝子' 또는 '孝孫'이라 칭하고, 喪에는 '哀子' 또는 '哀孫'이라 칭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48] 이에 관한 雲莊 陳澔(1260-1341)의 해설과 小註에 실린 桐廬 方慤(생몰미상)의 해설을 실었다. 雲莊은 "祭는 吉祭이다. 卒哭 이후에 지내는 喪祭는 吉祭이기 때문에 '孝'라고 칭한다. 虞祭 이전에 지내는 喪祭는 凶祭이기 때문에 '哀'라고 칭한다"고 설명했다.[49] 이에 반해 桐廬는「雜記」에서 말하는 '祭'는 祭禮이고 '喪'은 喪禮라고 보면서, '孝'는 종신토록 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祭禮에 적합한 표현이고 '哀'는 삼년동안 곡하는 소리나 상복으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喪禮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았다.[50]『家禮輯覽』은 이와 같이 고증한 다음『家禮儀節』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변증했다.

> 살펴보건대,『丘儀』는 初虞부터 禫까지 先祖에 대해서는 '孝'라 칭하고, 亡者에 대해서는 '哀'라고 칭한다. 이는「雜記」의 註와 같지 않다.[51]

『家禮儀節』의 사례는 雲莊이나 桐廬의 설명과는 또 다른 것이다. 즉,『家禮儀節』에서는 상중에 지내는 모든 제사의 축문에 그 대상이 조상이면 '孝'라 칭하고, 그 대상이 돌아가신 분이면 '哀'라 칭한다는 것이다.『家禮輯覽』은 이런 이설들을 제시만 하고, 이들 주장에 대해 우열을 평가하거나 취사를 판단하는 언급은 싣지 않았다.

이처럼 여러 주장이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자체로 다른 견해들을 제시해주는 사례는 이밖에도 많다. 예를 들면,「家禮

48)『禮記』雜記. "祭稱'孝子'、'孝孫', 喪稱'哀子'、'哀孫'."

49) 陳澔,『禮記集說』雜記. "祭, 吉祭也. 卒哭以後爲吉祭, 故祝辭稱'孝子'或'孝孫'; 自虞以前爲凶祭, 故稱'哀'."; 金長生, 앞의 책, 50면에서는 이를 좀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실었다. "祭, 吉祭也. 卒哭以後爲吉祭, 故稱'孝'; 自虞以前爲凶祭, 故稱'哀'."

50) 陳澔,『禮記集說』雜記. "[小註]【嚴陵方氏曰. '祭, 所以追養, 而盡於一身之終; 喪, 所以哭亡, 而止於三年. 孝則爲人子孫終身之行也, 故子孫之於祭必稱'孝'; 哀則發於聲音, 見於衣服, 蓋三年之禮而已, 故子孫之於喪止稱'哀'.'】"

51) 金長生, 앞의 책, 50면. "按,『丘儀』自初虞至禫, 於先祖稱'孝', 於亡者稱'哀', 此與「雜記」註不同."

圖」의 '深衣冠履之圖'에 나오는 '素帶朱裏'를 둘러싼 이설들에 대해서도 그렇고,[52] 「冠禮」에서 冠者가 착용하는 '勒帛采屨'에 대한 이설들과[53] 「喪禮」에서 '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려야 하는지에 관한 이설들에 대해서도 그렇다.[54] 이런 경우 자신의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낮게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섣부른 평가나 판단으로 인해 오해를 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한 태도이다. 더구나 이렇게 했을 때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거기에서부터 곧장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尤庵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남겨두셨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4. 『家禮』에 대한 『家禮輯覽』의 보정

1) 『家禮』에 대한 보완과 수정

제시된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考證이라면, 補正은 제시된 글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家禮輯覽』은 『家禮』에 대한 고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家禮』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는 작업까지 진행했다.

먼저, 『家禮輯覽』이 『家禮』의 설명이 미진하여 이를 보완하는 사례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家禮』「通禮」 '祠堂'條의 本註에 사당의 제도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깥에 中門을 만든다"[外爲中門]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실려 있지 않다. 이에 대해 『家禮輯覽』은 "中門은 外門을 상대로 한 말이다. 外門은 남쪽 담[南墻]에 있고, 中門은 堂의 남쪽 벽[南壁]에 있다."는 보완 설명을 했다.[55] 역시 「通禮」의 '祠堂'條에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한다"[有事則告]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사당에 고할 '일'로는 관직을 제수 받았거나[授官], 돌아가신 분에게 관직이 追

52) 같은 책, 7면 참조.
53) 같은 책, 88면 참조.
54) 같은 책, 176-177면 참조.
55) 같은 책, 26면. "外爲中門【按, 中門, 對外門而言. 外門在南墻, 中門在堂之南壁.】"

贈된 경우, 또는 嫡長子를 생산했거나 관례나 혼례를 치르는 경우 등이 예시되었다.[56] 그런데『家禮輯覽』은 이에 더해 "喪이 있는 경우에도 마땅히 고해야 한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57]

한편,『家禮』「喪禮」의 '成服'條에서 '齊衰三年'을 설명하는 本註에 "正服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입는다"[58]고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의 상복을 입는 경우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버지의 생존 여부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齊衰三年服을 입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尊厭'에 의해 복을 입는 기간이 期年으로 줄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家禮』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다. 그래서『家禮輯覽』은 '아버지의 삼년상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齊衰를 三年 동안 입지 못하고 期年만 입는다'는『儀禮』「喪服」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보완했다.『儀禮』「喪服」의 내용은 아버지 상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더더욱 삼년복을 입지 못함을 말해준다.『家禮輯覽』은 이어서 674년(上元 원년) '아버지가 살아계시더라도 어머니를 위해 삼년복을 입게 해달라'는 則天武后의 주청이 받아들여져 시행되었고, 717년(開元 5년)에 盧履氷이 이를 시정할 것을 주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정되지 못하고 成典이 되었다는『儀禮經傳通解續』의 기록을 옮겨 실었다. 그리고 뒤이어 "盧履氷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제도가 이러하니 감히 어길 수 없다"는 朱子의 말을 소개하면서, "宋朝도 唐制를 따라 사용했기 때문에『家禮』도 그런 것"이라는 按說을 덧붙였다.[59]

---

56) 朱熹,「祠堂」條,『家禮』通禮. "有事則告. [本註]○告授官 (…) ○告追贈 (…) ○主人生嫡長子 (…) ○冠、昏則見本篇.

57) 金長生, 앞의 책, 49면. "有事則告【按, 家有喪, 亦當告也. 蓋『禮』. '君薨, 祝取群廟之主, 藏諸祖廟.' 註. '象爲凶事而聚也.' 以此推之, 可知其必告也.】"

58) 朱熹,「成服」條,『家禮』喪禮. "'二曰齊衰三年.' [註]'其正服則子爲母也.'"

59) 金長生, 앞의 책, 250면. "子爲母【『喪服』. '父卒則爲母.'『疏』. '直云'父卒爲母'足矣, 而云'則'者, 欲見父卒三年之內而母卒, 仍服期, 要父服除後而母死, 乃得伸三年, 故云'則'以差其義.'「傳」. '何以期也? 屈也. 至尊在, 不敢伸其私尊也.' ○『通解續』. '唐前上元元年, 武后上表請'父在爲母終三年之服', 詔依行焉. 開元五年, 右補闕盧履冰上言: '准禮, 父在爲母, 一周除靈, 三年心喪, 請仍舊章.' 刑部郎中田再思建議: '上古喪服無數, 自周公制禮之後, 孔子刊經以来, 方殊厭降之儀, 以標服紀之節. 重輕從俗, 斟酌隨時, 循古未必是, 依今未必非也.' 履冰又上疏: '天無二日, 土無二君, 家無二尊, 以一理之也. 所以父在爲母服周者, 避二尊也.' 左散騎

물론 이러한 작업은 고증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증과의 차이는 『家禮』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家禮』는 正服으로서 齊衰三年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입는다'는 것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버지의 생존 여부에 따라 기간이 조정된다는 일종의 變禮는 다루지 않는다. 『家禮輯覽』의 『家禮』에 대한 보완은 이와 같이 變禮에 대한 문제에도 진행된 사례가 발견된다.

[표 2] 五服年月歷代沿革[60]

조목	내용
婦爲舅	『儀禮』齊衰期, 宋太祖朝斬衰三年, 今制斬衰三年.
夫承重	今制爲曾、高祖母斬衰三年.
子爲母	『儀禮』齊衰三年, 今制斬衰三年. '父在爲母', 『儀禮』期, 唐三年. 已見上.
嫡孫父卒爲祖母若曾、高祖母承重者	今制斬衰三年.
母爲嫡子當爲後者	今制、國制並降不杖期.
婦爲姑	『儀禮』齊衰期, 宋太祖朝齊衰三年, 今制斬衰三年. '庶子之妻爲夫所生母', 今制斬衰三年.
繼母慈母	今制並斬衰三年.
妾爲君之長子	「小記」與女君同, 今制、國制並降不杖期.
爲所後者之妻	『儀禮』「補服條」三年.
妾爲女君	國制無.
爲嫡婦	『儀禮』大功, 唐太宗朝爲期年.
爲曾祖、高祖	『儀禮』並三月, 『開元禮』曾祖五月, 高祖三月.
爲所後之曾祖	「補服條」齊衰五月.
爲衆子婦	『儀禮』小功, 唐太宗朝大功.
爲舅	『儀禮』緦麻, 唐太宗朝小功.
爲兄弟之妻	『儀禮』無, 唐太宗朝小功.
庶子爲嫡母之父母兄弟姊妹	今制同, 國制無.
爲夫之兄弟	『儀禮』無, 唐太宗朝小功.
庶母	今制、國制並杖期.
庶子爲父後者爲其母	國制無, 『儀禮』緦麻三月.
爲夫之曾祖高祖	古禮無, 『開元禮』緦麻, 『家禮』因之.
爲夫之外祖父母	國制無.
爲夫之從母及舅	國制無.
爲同爨、爲朋友、大夫爲貴妾、士爲妾有子	今制、國制並無.
子爲父母、妻妾爲夫、臣爲君、孫爲祖後 改葬緦	今制、國制並無.
爲從兄弟妻	今制、國制並緦麻.
爲夫之從父兄弟	今制、國制並緦麻.
族人爲宗子母及妻	『儀禮』齊衰三月.
爲舅妻	『開元禮』、國制並緦麻.
爲人後者爲本生外祖父母	今制緦麻.

위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家禮輯覽』은 『家禮』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歷代로 五服을 입는 기간에 변화가 있었던 30조목을 선정하고, 그 沿革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싣고 있다. 그것이 바로 「五服年月歷代沿革」이다.([표 2] 참조) 「五服年月歷代沿革」의 구성을 위에서 논의했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입는다'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기간의 변화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常侍元行冲奏議: '今若捨尊厭之重, 虧嚴父之義, 事不師古, 有傷名教.' 後中書令蕭嵩與學士改修五禮, 又議請依上元父在爲母齊衰三年爲令, 遂爲成典.' ○『大全』郭子從問『儀禮』父在爲母, 曰. '盧履氷議是, 但今條制如此, 不敢違耳.' 按, 宋朝循用唐制, 故『家禮』因之."

60) 같은 책, 293-294면.

『儀禮』는 齊衰三年이고, 今制는 斬衰三年이다. '아버지가 계시는 경우 어머니를 위한 복'은『儀禮』는 期年이고, 唐制는 三年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앞에 제시했다.[61]

다음은『家禮輯覽』이『家禮』를 수정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수정 사례로는『家禮』의 誤字나 闕文에 대한 것들을 들 수 있다. 먼저 誤字를 수정한 사례로는「通禮」'祠堂'條의 "爲四龕以 (…)" 아래 附註에 나오는 '衰'자는 '氵'부수가 있는 '滾'자의 誤字라며 수정한 것을 들 수 있다.[62] 闕文의 경우로는 역시「通禮」'祠堂'條의 "旁親之無後 (…)" 아래 附註에 "형이나 동생, 형수나 자신의 아내 그리고 제수인 경우에는 祖母의 곁에 班祔한다."[63]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祖母'는 '祖父母'가 되어야 한다며 '父'자가 빠졌음을 지적한 사례를 들 수 있다.[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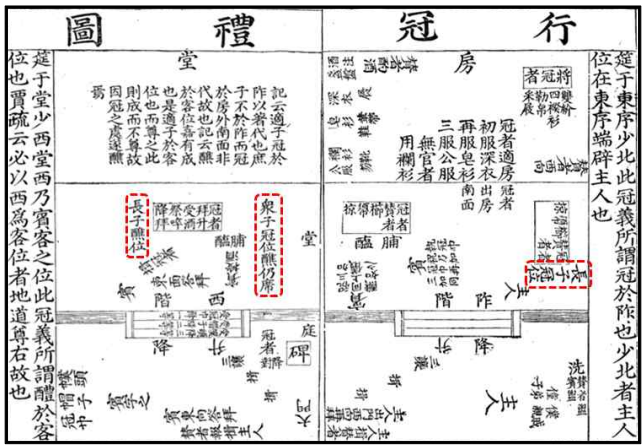
『家禮輯覽』의『家禮』수정은 단순히 誤字나 闕文에 대한 수정에서 끝나지 않고 기존의 구성을 수정하여 재구성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家禮圖」중에 '行冠禮圖'를『家禮輯覽圖說』에서「長子冠禮圖」와「衆子冠禮圖」로 재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65]『家禮』「冠禮」本文이나 本註에는 長子인지 衆子인지 구분하지 않고 '將冠者' 또는 '冠者'라고만 지칭하면서 冠禮의 儀節이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家禮圖」의 '行冠禮圖'에는 長子의 冠位는 阼階 위면이고 醮位는 西階 위면에 표기되어 있는 반면, 衆子는 冠位와 醮位 모두 西階 위면 같은 곳으로 표기되어 있다.['衆子冠位, 醮仍席']

『家禮輯覽圖說』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하여『家禮』의 '行冠禮圖'를 대폭 정비했다. 우선 '行冠禮圖'를 '長子'에 초점을 맞춰「長子冠禮圖」로 수정하면서 일부 내용도 바로잡았다. 그런가 하면, '行冠禮圖'에 나오는 衆子의 冠位와 醮位에 관한 내용은「長子冠禮圖」에서는 삭제하고 별도로「衆子冠禮圖」를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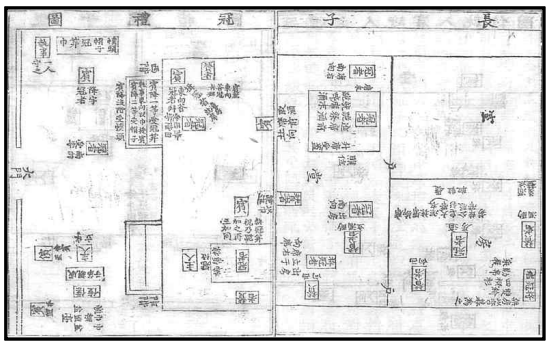
61) 같은 책, 293면. "「五服年月歷代沿革」'子爲母'【『儀禮』齊衰三年, 今制斬衰三年. '父在爲母', 『儀禮』期, 唐三年. 已見上.】"
62) 같은 책, 31면. "衰【按, 疑當從水.『韻會』滾通混, 渾未相離也.】"
63) 朱熹,「祠堂」條,『家禮』通禮. "'旁親之無後者, 以其班祔.' [附註]劉氏【垓孫】曰. '(…) 兄弟、嫂妻婦, 則祔于祖母之傍.'"
64) 金長生, 앞의 책, 33면. "祔于祖母之傍【按, '母'上疑闕'父'字.】"
65) 같은 책, 536-538면 참조.

여기에 반영했다. 관련하여 『家禮輯覽』이 「家禮圖」를 검토하면서 "'衆子冠位, 醮仍席' 일곱 글자는 衆子의 冠席 櫛・笄・掠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바로잡은 바 있는데,[66] 그 결과는 『家禮輯覽圖說』의 「衆子冠禮圖」에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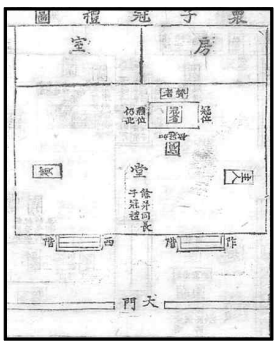
[도 1] 『家禮』 「行冠禮圖」



[도 2] 『家禮輯覽圖說』 「長子冠禮圖」



[도 3] 「衆子冠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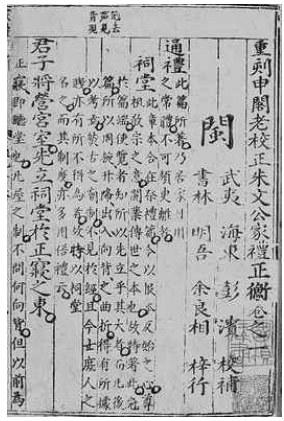


2) 『家禮』 羽翼書들에 대한 비판

조선에서 『家禮』 연구가 본격화될 무렵 중국에서도 여러 종류의 『家禮』 관련

66) 같은 책, 7면. "衆子冠位醮仍席【按, 此七字當在衆子冠席櫛、笄、掠下.】"

연구서들이 출현했다. 예를 들면 15세기 초반에 馮善(생몰미상)의 『家禮集說』(1403-1424)과 王源(생몰미상)의 『家禮易覽』(15세기 초중반)이 편찬되었고, 15세기 중후반에 湯鐸(생몰미상)의 『家禮會通』(1450)과 丘濬(1418-1495)의 『家禮儀節』(1474)이 편찬되었다. 그리고 16세기 중반에 魏堂(생몰미상)의 『家禮會成』(1557)이 저술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楊九經(생몰미상)의 『家禮正衡』[67]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家禮』 우익서들 중에 『家禮輯覽』과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중국에서 간행된 『家禮會成』과 비교함으로써 『家禮』 보정에 관한 『家禮輯覽』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重刻申閣老校正朱文公家禮正衡 卷之
閩
武夷 海東 彭濱 校補
書林 明吾 余良相 梓行
通禮
祠堂
君子將營宮室先立祠堂於正寢之東


萬曆己亥歲夏月
自新齋余明吾梓

67) 『家禮正衡』은 明代에 간행되었는데, 조선에서 언급한 『家禮正衡』은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난다. 먼저 宋時烈이 언급한 楊氏의 『家禮正衡』이 있다. 宋時烈, 「家禮輯覽後序」, 『宋子大全』 卷139. “蓋自皇朝以來, 祖述此書者, 有丘氏『儀節』、魏氏『會成』、楊氏『正衡』, 馮氏『集說』.” 宋煥箕도 「家禮增解序」에서 5대조인 宋時烈의 말처럼 이 楊氏의 『家禮正衡』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언급한 『家禮正衡』은 楊九經이 편찬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宋煥箕, 「家禮增解序」, 『性潭先生集』 卷13. “自皇明以來, 祖述此書者, 有丘氏『儀節』、魏氏『會成』、楊氏『正衡』.”; 宋時烈, 『宋子大全』 卷83 隨箚 卷9. “『家禮正衡』【明儒楊九經所纂】” 다음으로는 李瀷이 「家禮喪祭圖說序」에서 언급한 申時行의 『家禮正衡』이 있다. 李瀷, 「家禮喪祭圖說序」, 『星湖先生全集』 卷49. “丘濬有『儀節』, 馮善有『集說』, 楊[湯]鐸有『會通』, 申時行有『正衡』, 王源有『易覽』.” 이렇게 조선의 학자들이 같은 이름의 『家禮正衡』을 언급하면서 이 책이 누구의 편저인지를 달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자료를 검색해 보면, 萬曆27년(1599) 自新齋 余明吾가 重刻한 『重刻申閣老校正朱文公家禮正衡』(8卷)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 책을 살펴보면 溫陵 楊九經言이 쓴 「敍文公家禮正衡」이라는 글이 실려 있고, 「朱文公像」을 비롯한 朱子의 행적과 관련한 여러 장의 圖像이 실려 있다. 그리고 본문에 가서 『重刻申閣老校正朱文公家禮正衡』이 나오고, 두 칸에 걸쳐 쓰인 ‘閩’이라는 큰 글자 아래 ‘武夷 海東 彭濱 校補’와 ‘書林 明吾 余良相 梓行’이라는 표기가 있으며, 책의 맨 마지막에 ‘萬曆己亥歲夏月, 自新齋余明吾梓’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이 책은 楊九經이 편찬하였고, 이를 申閣老(申時行)가 校正을 했으며, 이를 다시 彭濱이 校補를 하고 余良相이 重刻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선시대 학자들이 언급한 『家禮正衡』이 楊九經이 편찬한 初刻本이냐 申閣老(申時行)가 校正을 한 重刻本이냐에 따라 다르게 소개되었지만 동일한 책이었을 것이다.

『家禮會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책이 철저하게 『家禮儀節』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魏堂은 약관의 나이에 禮學에 뜻을 두었는데 그 때 『家禮』가 아닌 『家禮儀節』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서문에서 소개하면서, "『家禮儀節』이 나온 지가 오래되었지만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한탄했다"고 밝히고 있다.[68]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魏堂은 『家禮儀節』을 통해 『家禮』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은 『家禮會成』에 「家禮儀節序」가 먼저 게재되어 있고, 그 뒤에 「文公家禮序」가 게재되어 있는 것에서도 방증되며, 「文公家禮序」도 실제 『家禮』에 실린 「家禮序」가 아니라, '濬按'이라는 丘濬의 註가 달린 『家禮儀節』에 실렸던 「文公家禮序」라는 사실은 이를 더욱 확실하게 지지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는 『家禮會成』에 실린 何鰲(1497-1559)와 黃九皐(?-1565)의 서문에서 거의 사실로 확인된다.[69]

이러한 사실은 『家禮會成』이 『家禮』보다 오히려 『家禮儀節』의 문제점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저술된 것임을 증언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징은 『家禮輯覽』이 철저하게 『家禮』에 대한 고증과 보정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저술된 것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家禮會成』과 『家禮輯覽』의 이러한 근본적 차이는 이 두 책이 『家禮』의 「圖」를 다루는 방식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祠堂圖'와 관련한 차이를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家禮』「祠堂圖」 관련 비교

서명	위치	내용
『家禮』「圖」	卷首	家廟之圖 - 祠堂之圖 - 深衣前圖 - (…) - 大宗小宗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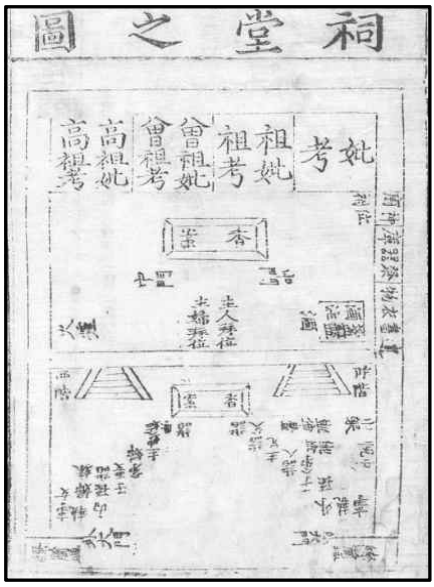
68) 魏堂, 「文公家禮會成序」, 『家禮會成』. "余方弱冠時, 卽有志於禮學, 見一二居喪者, 儀文度數似未合禮, 乃取『家禮儀節』, 而細繹之, 因竊嘆曰'文莊公此書傳播已久, 而人猶貿貿焉者, 良以但觀其本文之敍陳, 而未察諸註之意義也."

69) 何鰲, 「文公家禮會成序」, 『家禮會成』. "於是王源爲之『易覽』, 馮善爲之『集說』, 然皆瑣鄙繁雜, 有偏駁之私, 而鮮融會之識, 本欲發明『家禮』, 而不知其爲『家禮』之戾多矣. 善乎, 瓊山丘氏之『儀節』也. 發所未發, 備所未備, 而『家禮』爲之復明. 第舊習猶有所沿, 而證釋或有未能盡者, 君子不能以無議焉. 及觀魏君斯作, 則又廣覽載籍, 博游才藝, 補闕訂疑, 守經達權, 纖鉅該貫, 古今折衷, 人情不違, 土俗是宜, 俾薄海內外咸誦其書, 而不能一日違焉者矣."; 黃九皐, 「文公家禮會成序」, 『家禮會成』. "丘文莊公『家禮儀節』所以申明晦翁崇化道民之意, 傳播海宇, 作式後學. 篤古之家世能守之, 而是古非今之士多有不能遵者, 蓋苦於持禮之難, 而未會諸註之義也. (…) 『儀節』止摘其要旨, 而未及援註以作證. 峴山魏侯宰蕭之暇, 折『家禮』之文, 以以諸註及經傳之發明禮教者, 綴於逐條之下, 仍以己見及儀註附之, 名曰『家禮會成』."

『家禮儀節』「通禮圖」	「通禮」後	大宗小宗圖 - 祠堂三間之圖 - 祠堂一間之圖 - 祠堂時節陳設之圖 - 家衆敍立之圖 - 義門鄭氏祠堂位次之圖 - 五世竝列之圖 - 祭四世之圖
『家禮會成』「通禮圖」	「通禮」後	大宗小宗圖 - 祠堂三間之圖 - 祠堂一間之圖 - 祠堂時節陳設之圖 - 家衆敍立之圖
(附錄)『家禮輯覽』「圖說」	「通禮」條	祠堂全圖 - 立祠堂廳事東之圖 - 『喪禮備要』祠堂圖(祠堂全圖 - 立祠堂廳事東之圖) - 大宗小宗圖 - 正至朔日俗節出主櫝前家衆敍立之圖 - 望日不出主圖 - 男女盛服圖 - 祭器圖 - 叉手圖・祇揖圖・展拜圖・揖禮圖・拜禮圖 - 中指中節爲寸圖 - 深衣前圖 - (…)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家禮儀節』과 『家禮會成』은 「祠堂圖」를 배치한 위치가 공통적으로 「通禮」後라는 점은 물론이고, '大宗小宗圖'부터 '家衆敍立之圖'까지 구성 내용 또한 동일하다. 『家禮儀節』은 『家禮』「圖」의 맨 뒤에 배치되어 있던 '大宗小宗圖'를 맨 앞으로 옮겨 배치하면서, 그 이유를 "宗法은 『家禮』의 大義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70]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大宗小宗圖'의 내용도 『家禮』에 '諸侯-別子-高祖-曾祖-祖-禰'순으로 되어 있던 것을 『家禮儀節』은 '始祖-高祖-曾祖-祖-禰' 순으로 고쳤다. 또한 『家禮』에 있던 '家廟圖'를 『家禮儀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예 제거해버렸다. 첫째 『家禮』「通禮」에 '祠堂'만 있고 '家廟'는 없다는 점, 둘째 옛날의 廟制가 경전에 나와 있지 않다는 점, 셋째 庶人의 집에서 家廟를 세울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71] 이러한 『家禮儀節』의 설을 『家禮會成』 역시 모두 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通禮圖」

[도 4] 『家禮』「祠堂之圖」



70) 丘濬, 「通禮圖」, 『家禮儀節』. "舊以家廟祠堂爲首, 而大小宗圖在主式之後, 今首宗法者, 『家禮』大義所繫也."
71) 丘濬, 「通禮圖」, 『家禮儀節』. "除去家廟圖者, 以通禮止有祠堂而無家廟, 況朱子明言古之廟制不見於經, 且今士庶人之家亦有不得立者."

의 구성도 전반적으로 『家禮儀節』을 따랐다.[72]

특히 『家禮會成』이 『家禮』보다 『家禮儀節』에 따라 저술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祠堂에 高祖·高祖妣부터 考·妣까지 四代의 神主를 배치하는 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家禮』의 '祠堂之圖'에는 高祖·高祖妣-曾祖·曾祖妣-祖·祖妣-考·妣와 같이 '以西爲上'의 원칙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家禮儀節』 역시 祠堂三間之圖·祠堂一間之圖·祠堂時節陳設之圖·家衆敍立之圖는 『家禮』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義門鄭氏祠堂位次之圖·五世竝列之圖·祭四世之圖에서는 전혀 다른 형식을 소개하고 있다.

[표 4] 『家禮儀節』「祠堂位次圖」

<table>
<tr><td>義門鄭氏祠堂位次之圖</td><td>考</td><td>祖考</td><td>曾祖考</td><td>高祖考</td><td>四世
祖考</td><td>四世
祖妣</td><td>高祖妣</td><td>曾祖妣</td><td>祖妣</td><td>妣</td></tr>
<tr><td>五世竝列之圖</td><td colspan="2">顯妣：顯考</td><td colspan="2">曾祖妣：曾祖考</td><td colspan="2">始祖妣：始祖考</td><td colspan="2">高祖妣：高祖考</td><td colspan="2">祖妣：祖考</td></tr>
<tr><td>祭四世之圖</td><td colspan="3">顯妣：顯考</td><td colspan="3">曾祖妣：曾祖考</td><td colspan="2">高祖妣：高祖考</td><td colspan="2">祖妣：祖考</td></tr>
</table>

먼저 '義門鄭氏祠堂位次之圖'는 四世祖考가 중앙의 우측, 四世祖妣가 중앙의 좌측에 배치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高·曾·祖·考는 四世祖考의 우측 방향, 高·曾·祖·妣는 四世祖妣의 좌측 방향으로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다. 『家禮儀節』은 이 위차도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위차가 '以西爲上'의 원칙에 비추어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선 이 위차도는 중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성[四世祖考-考]이 우측[西], 여성[四世祖妣-妣]이 좌측[東]에 배치되었다는 점은 '以西爲上'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남성[四世祖考-考]만을 살펴보면 좌측[東]이 上이 되는 형식이어서 '以西爲上'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五世竝列之圖'는 '義門鄭氏祠堂位次之圖'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차

72) 물론 『家禮會成』은 『家禮儀節』에서 다루고 있는 '義門鄭氏祠堂位次之圖'부터 '祭四世之圖'까지를 「通禮圖」에 싣지 않아서 差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關聯 部分의 『家禮儀節』「通禮圖」 內容을 『家禮會成』에서는 本文 通禮 部分에서 '祭四代'와 '祠堂祭始祖之非' 項目에 反映하고 있으므로 『家禮儀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가 있다. 우선 四世祖考·妣 대신 始祖考·妣를 배치했다는 점, 다음으로 남성[四世祖考-考]과 여성[四世祖妣-妣]을 나누지 않고 代마다 考·妣를 함께 모셨다는 점, 그리고 중앙의 始祖考·妣를 기준으로 중앙→좌1→우1→좌2→우2 순으로 위차를 정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차이는 '義門鄭氏祠堂位次之圖'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家禮儀節』은 이와 같은 '五世竝列之圖'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먼저 四代奉祀도 참람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始祖를 모시는 것은 더욱 불가하다는 점, 다음으로는 이런 위차에 따라 제사를 지낸다면 할아버지[高祖考]와 손부며느리[祖妣]가 나란히 붙어 있는 혐의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家禮儀節』이 제시한 것이 '祭四世之圖'다. 이 위차도는 우선 '五世竝列之圖'와 비교할 때 始祖考·妣를 배제한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丘濬은 다음과 같이 절충안을 제시한다.

> 國初에 行唐縣의 知縣인 胡秉中의 말을 채용하여 庶人들에게도 三代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曾祖를 중앙에 모시고 祖를 좌측, 禰를 우측에 모시도록 했다. 이제 士大夫家에서 四代까지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도 時制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사당에 龕을 배치할 때 판자로 칸막이[限隔]를 하면 할아버지와 손부며느리가 인근하는 혐의가 없을 것이다. 만일 신주를 寢으로 모시고 나와서 제사를 지낼 경우『家禮』의 '以右爲上'에 따른다면 禮와 俗 모두에 합당할 것이다.73)

丘濬의 절충안은 國初에 제정한 時制에 따라 사당에 신주를 봉안할 때는 '祭四世之圖'처럼 중좌[高]→중우[曾]→좌[祖]→우[考] 순으로 위차를 정하고, 寢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家禮』와 같이 '以西爲上'의 방식에 따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家禮儀節』의 祠堂圖는 神主[龕]의 배치가 중좌[高]→중우[曾]→좌[祖]→우[考]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하겠으나, 현전하는 조선에서 간행된『家禮儀節』에는 '祠堂三間之圖'와 '祠堂一間之圖' 모두 '以西爲上'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조선에서『家禮儀節』을 간행하면서 단순한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의

73) 丘濬,「祭四世之圖」,『家禮儀節』通禮圖. "國初用行唐縣知縣胡秉中言, 許庶人祭三代, 以曾祖居中, 而祖左禰右. 今擬士大夫家祭四代者, 亦合如時制. 列龕祠堂, 板以限隔, 則無翁婦相近之嫌. 若夫出主以祭於寢, 則依『家禮』以右爲上之制, 庶幾禮俗相得云."

도적으로 『家禮』에 따라 수정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家禮會成』의 '祠堂三間之圖'와 '祠堂一間之圖'는 중좌[高]→중우[曾]→좌[祖]→우[考] 순으로 神主[龕]가 配置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원래 『家禮儀節』도 『家禮會成』과 같은 형식이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家禮會成』에는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여러 증거들이 발견된다. 우선 『家禮會成』은 '列主位次'條에서 중좌[高]→중우[曾]→좌[祖]→우[考]의 형식을 설명한 뒤, 『大明會典』「祠堂圖」와 『家禮儀節』 '祭四世之圖'에 달린 丘濬의 절충안을 근거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뒤이어 '以西爲上'이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는 내용을 '列主以西爲上之非'라는 제하에 싣고 있다. 여기에 인용된 侯氏의 이야기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朱子께서 [以西爲上은] 古禮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다만 당시 宋나라 太廟가 모두 그러하므로 일찍이 [이를 시정하라고] 獻議하고자 하셨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셨던 것뿐이며, 『家禮』를 만드실 때에는 우선 시제를 따르셨던 것이다. 우리 聖祖에 이르러 太廟의 제도가 옛날에 영향 받지 않고 독단에서 나왔는데, 옛과 오늘을 적절하게 참작하여 인심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할 만하다.[74]

[도 5] 『家禮會成』「祠堂一間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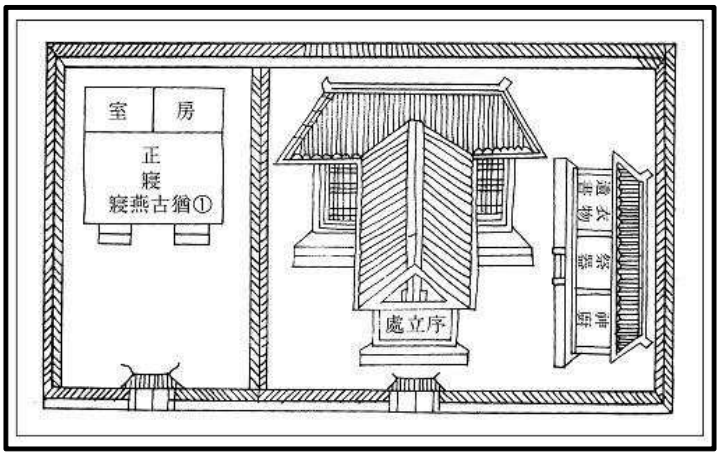
이것이 비록 侯氏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家禮會成』의 입장 역시 이와 같다고 본다면, 『家禮會成』은 明代의 時制를 대단히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家禮會成』의 입장은 비록 侯氏의 입을 빌려 朱子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家禮儀節』이 明代의 時制와 『家禮』에 제시된 내용을 절충하고자 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家禮』보다 時

74) 魏堂, 「列主以西爲上之非」, 『家禮會成』 通禮. "朱子明謂非古禮, 特以其時宋太廟皆然, 嘗欲獻議而未果, 『家禮』之作, 姑從時制. 至我聖祖, 太廟之制出自獨斷, 不沿於舊, 可謂酌古準今, 得人心之安者矣."

制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면『家禮輯覽』은 훨씬『家禮』에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家禮輯覽圖說」에도 '家廟之圖'를 배제했다든가, '大宗小宗圖'를「祠堂圖」의 뒤로 옮긴 것처럼『家禮』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에『家禮儀節』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임도 틀림없다. 그러나『家禮輯覽』은 전반적으로는『家禮』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과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 이러한 이해를 풍부하게 고증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家禮儀節』이나『家禮會成』처럼 신주의 위차 문제에는 처음부터 눈길도 주지 않고,『家禮』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오히려『家禮輯覽』은 어떻게『家禮』의 내용을 정확하게 준행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家禮儀節』이나『家禮會成』에는 없는 '男女盛服圖'와 '祭器圖' 심지어 '叉手圖・祗揖圖・展拜圖・揖禮圖・拜禮圖' 등 비교적 사소한 항목들까지 참고도로 제시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도 6]『家禮輯覽』「祠堂全圖」



『家禮』의 祠堂圖와 관련하여『家禮輯覽』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祠堂全圖'이다.『家禮儀節』과『家禮會成』은 사당 부지의 너비에 따라 3칸으로 지을 것이냐 1칸으로 지을 것이냐 하는 규모에 주목하였다면,『家禮輯覽』은 사당의 규모보다 사당의 구조 특히 지붕[屋]의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家禮輯

覽』이 여기에 주목하는 까닭은 그것이 사당에서 실제로 행례를 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家禮』의 本註에는 "지붕을 덮어 敍立하는 家衆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있다.[75] 『家禮輯覽』은 우선 '敍立하는 家衆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을 사당에서 행례를 할 때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다시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봉행하는 사당 본체와 제사에 참여하는 家衆이 敍立하는 공간의 지붕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지붕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兩階 사이에 香卓을 진설한다"는 『家禮』의 또 다른 本註 내용에 비추어보아도 당연한 것이라고 『家禮輯覽』은 설명한다. 이러한 『家禮』의 내용에 대한 정합적 이해와 실제 행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家禮輯覽』은 '祠堂全圖'에서 丁字閣 형태의 사당을 제시한다.[76]

『家禮輯覽』에 제시한 丁字閣 형태의 사당이 『家禮』가 의도한 사당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안은 적어도 『家禮輯覽』이 『家禮』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려는 수동적인 차원을 넘어서 내용의 정합적 완성도를 구축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家禮輯覽』에 나타난 이와 같은 『家禮』 연구 경향은 비슷한 시기 『家禮會成』이 『家禮』보다 『家禮儀節』을 바탕으로 明代의 時制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경향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5. 결론

조선 중기의 『家禮』 연구가 행례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家禮』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는 단계를 지나 고증의 차원으로 접어들었던 것이 16세기 후반까지의 경향이었다. 『家禮輯覽』은 당시 조선에서 진행된 『家禮』 연구의 실질적 성과물이자 17세기 이후 진행될 『家禮』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주

75) 朱熹, 『家禮』 通禮. "'君子將營宮室 (…)' 附註. '階下隨地廣狹, 以屋覆之, 令可容家衆敍立.'"
76) 金長生, 「家禮輯覽圖說・祠堂全圖」, 앞의 책. "按, 本註'階下隨地廣狹, 以屋覆之', 其制不可得以詳也. 姑以本註推之, 其以屋覆之者, 乃家衆序立之際, 欲蔽雨暘也. 然則其制當與祠堂前簷相接, 今陵寢丁字閣亦其制也. 其下'四龕'註'兩階之間, 又設香卓', 然則香卓豈可設於雨暘之下乎?"

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家禮輯覽』은『家禮』에 대한 명료하고 정확한 이해를 충분한 고증을 통해 충족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家禮』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문제가 되는 오류를 수정하는 새로운 차원의『家禮』 연구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家禮輯覽』의 특징은 동시대의 다른『家禮』 연구서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해진다. 동시대 조선에서 저술된『家禮考證』의 경우『家禮』에 대한 고증이라는 측면에서는『家禮輯覽』에 비견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보정의 단계에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 한편 동시대 중국에서 저술된『家禮會成』은『家禮』보다는『家禮儀節』의 우익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明代의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등『家禮』 연구서로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비하면『家禮輯覽』은『家禮』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고증과 보정이라는『家禮』 연구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특히『家禮輯覽』은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家禮』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의식을『家禮』 연구에 도입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지평의『家禮』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家禮輯覽』의 문제의식과 연구방향은 이후 조선시대『家禮』 연구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市南 俞棨(1607-1664)의『家禮源流』, 東巖 柳長源(1724-1796)의『常變通攷』, 鏡湖 李宜朝(1727-1805)의『家禮增解』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한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특징과 의의를 종합해 볼 때『家禮輯覽』은 당대 최고 수준의『家禮』 연구서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高麗史』, 『世宗實錄』, 『禮記』, 『太祖實錄』, 『太宗實錄』.

丘 濬, 『家禮儀節』, 學民文化社, 2003.
金長生, 『家禮輯覽』, 韓國禮學叢書 5, 慶星大 韓國學硏究所, 2008.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 111-112.
宋 寅, 『頤庵遺稿』, 韓國文集叢刊 36.
宋煥箕, 『性潭集』, 韓國文集叢刊 244.
魏 堂, 『家禮會成』(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李彦迪, 『奉先雜儀』, 韓國禮學叢書 1, 慶星大 韓國學硏究所, 2008.
李 瀷, 『星湖全集』, 韓國文集叢刊 199.
李 滉,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
朱 熹, 『朱子語類』, 黎靖德 編, 中華書局, 1986.
_____, 『家禮』, 學民文化社, 2001.
陳 澔, 『禮記集說』, 保景文化社, 1995.

고영진, 『조선 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_____, 「조선 중기 가례주석서의 특성」, 『한국계보연구』 제6호, 한국계보연구회, 2016, 33-65면.
김현수,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율곡학파의 家禮주석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9집, 한국유교학회, 2017, 103-132면.
남재주, 「조선후기 예학의 지역적 전개 양상 연구—영남지역 예학을 중심으로」, 경성대 박사학위논문, 2012.
장동우, 「『가례』주석서를 통해 본 조선 예학의 진전과정」, 『동양철학』 제34집, 한국동양철학회, 2010, 239-269면.
_____, 「朝鮮時代 『家禮』 硏究의 進展」, 『태동고전연구』 제31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3, 209-255면.
_____, 「『喪禮통재』의 예학사적 위상」, 『태동고전연구』 제32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4, 171-200면.
池斗煥, 「國朝五禮儀 編纂過程(1)」, 『釜山史學』 제9호, 부산경남사학회, 1985, 145-180면.
한재훈, 「退溪 예학사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_____, 「퇴계 예학관련 문헌자료의 전개양상」,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a, 223-252면.
_____, 「退溪 禮說에 대한 沙溪의 비판과 계승—『疑禮問解』와 「『喪祭禮答問』辨疑」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제30호, 한국실학학회, 2015b, 221-250면.

【Abstract】

A Study on the reviewed, proved, supplemented, and modified of GARYE (家禮) in the Mid-Joseon Period —Focused on the case of *GARYE-JIPRAM* (家禮輯覽)—

Han, Jae-Hoon*

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level of *GARYE* (家禮) research at the time, focusing on *GARYE-JIPRAM* (家禮輯覽) of Kim Jang-saeng (1548-1631), which is an intermediate result of *GARYE* research conducted in the middle of Joseon (朝鮮) Dynasty.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first reviewed the problem awareness and overall configuration of *GARYE-JIPRAM*, followed by the content and level of the grievance and correction for *GARYE*.

GARYE-JIPRAM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clearly understanding the arcane content of *GARYE*.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the book set up 1,511 headings for the text, original notes and attached notes of *GARYE* and reviewed, proved, supplemented, and modified them. And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proving and supplementing and modifying, almost all of the data that could be referenced at that level were reflected in the content.

The work of *GARYE-JIPRAM* to review and prove for *GARYE* has been done in two main directions. The first is aimed a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GARYE*, and the second is to devalue various aspects of *GARYE* carefully. Compared to the work being reviewed and proved to be accurate in understanding the article presented, the complement and correction refers to the task of finding and correcting deficiencies or problems in the article presented. *GARYE-JIPRAM* went a step further from reviewing and proving *GARYE* to supplement the deficient parts of *GARYE* and to correct the erroneous parts. The research trend of *GARYE-JIPRAM* on *GARYE* can confirm that *GARYE-HOESUNG* (家禮會成), published in China at a similar time, was aimed at thoroughly understanding and following GARYE, compared with a trend that reflected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

many of the rites of the Ming (明) Dynasty.

Keywords: Kim Jang-saeng, *GARYE-JIPRAM* (家禮輯覽), *GARYE* (家禮), Yehak, the middle of Joseon (朝鮮) Dynasty.

접수일: 2019.12.30. || 심사일: 2020.01.13. || 게재확정일: 2020.02.07.